

2024 새해 이렇게

박홍률 목포시장

청년 일자리 창출 집중...젊은 경제도시 만들겠다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차질없이 추진 내년 국제남도미식산업 박람회 개최 미식관광 활성화에 최선

“목포시는 민선 8기 시정비전의 실현을 위해 시민과 함께 심 없이 달려왔고 그 결과 2023년은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많은 성과를 경험했으며 무엇보다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우리 시민의 힘으로 역대 최고 대회로 성공 개최 해 냈습니다. 이는 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 덕분입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신년 인터뷰에서 “지난 1년은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를 열어가기 위한 탄탄한 토대를 구축했던 시간이었다고 각 분야에서 값진 성과를 거뒀다”라고 자평했다.

목포시는 올 해두를 청년의 일자리 창출로 떠나지 않은 목포, 젊은 경제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의 거점이 될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

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스마트 해양관광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줄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올해 착공하고 4차산업의 핵심 기지가 될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하고 함께 청년이 찾는 젊은 경제 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해상풍력, 친환경 선박 및 특수조선 산업을 목포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국내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에 전진기지 임무를 수행할 거점단지를 목포신항에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류형 국제해양관광도시 기반을 강화해 관광객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명품 해양경관을 느낄 수 있는 목포만의 해양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가겠다”고 했다.

시는 섬을 활용한 차별화된 해양관광의 기폭제가 될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가 2026년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민간 기업이 시에 투자하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삼학도는 ‘김대중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하고 근대역사문화거리를 연결하는 ‘삼학아트교’ 조성도 정부 계획과 국고 반영을 위해 노력하며 평화광장에서 대만동까지 약 12km의 해안선 구간에 ‘해변맛길 30리 바다산책로’는 물론 천혜의 자연경관과 낭만적인 바다를 감상할 수 있도록 ‘고하도 해상데크’ 확장과 ‘해안동굴 탐방로’도 조성할 계획이다.

맛의 수도 1번지로 미식 관광의 기반을 조성해 위해서는 문체부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된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올해 목포에서는 처음 개최됨을 전제, 미식산업 전담팀(TF)을 신설해 맛의 수도 목포를 확실하게 알리고 젊음과 맛의 향연이 가득한 음식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2025년에 ‘국제남도미식산업박람회’로 확대 개최되면 목포의 맛을 전 세계에 알리고 관광에

서 중요한 요소가 음식인 만큼 지역의 음식을 기반으로 한 관광상품개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미식관광의 가치와 경쟁력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수산식품산업 중심도시 기반을 강화,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교육을 확대, 목포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으로 어학연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분야별로 다양한 장학사업을 지원해 미래 인재 육성에 힘쓴다는 야심 찬 계획도 함께 세우고 있다.

박홍률 시장은 “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의대 유치와 목포·신안 통합 분위기를 조성해 위해 힘쓰겠다”며 “의과대학 및 대학 병원이 꼭 지역에 설립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등에 전방위적인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섬 주민들의 장래절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로 1기를 증설하고, 재목 신안군 향우회, 청년층, 산업, 유통, 문화예술,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통합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해남군 생활임금 시급 1만 930원...지난해보다 3.4% 인상

최저임금보다 1070원 많아

해남군이 최근 해남군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해남군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930원으로 확정했다.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28만 4370원(주당 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는 2023년 1만 570원보다 3.4%(360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4년 최저

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1070원이 많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군과 군의회 및 군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60여 명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군비 지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1994년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시행되고 있다.

최저임금, 불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해남군은 전남도내 군단위에서는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해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무안항토갯벌랜드 전경.

무안항토갯벌랜드, 올해부터 입장료 없앤다

주중 숙박요금도 50% 감면

무안군이 황토갯벌랜드의 입장료를 없앤다.

무안군은 ‘무안항토갯벌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돈을 내지 않고 입장하도록 했다.

군은 무안갯벌이 세계유산 2단계 잠정 등재됨에

따라 무안항토갯벌랜드 활성화와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무료화를 추진했다. 주중 숙박요금 이용 요금도 전체 이용객 대상 50% 감면한다.

무안군 관계자는 “무안갯벌의 가치를 홍보하고 서해안을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명소를 거듭나고자 입장료를 없앴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영광사랑상품권 특별할인

2월까지 할인율 10%로 높여

영광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영광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한다.

영광사랑상품권은 2월29일까지 관내 농·축·수협과 광주은행 등 32개 금융기관에서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영광사랑상품권은 월 50만원까지 총전이 가능한데, 할인된 가격으로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등 9개 사업에서 지원되는 정책수당에 한해서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인 농협·축협 하나마트와 기독교병원, 영광병원 등에서 사용도 가능하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10% 특별할인 판매를 통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진도군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선정

문체부 2027년까지 200억 지원

문화예술 거점시설 등 16개 사업

진도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거듭난다.

진도군은 ‘보배로운 섬’ 진도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도시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특색있는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도시의 경제적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선도할 13개 지자체를 지정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 실적 심사를 거쳐 2024년 말에 최종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2027년까지 각 지자체에 최대 200억원(국비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진도군은 진도아리랑, 전통무용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속문화 마스터 클래스’ 특성화(영커) 사업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민속문화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2종과 무형문화재 12종, 예능보유자 15명, 향토문화유산 36종을 보유하고 있는 민속문화의 수도이자 대한민국 유일한 민속문화예술특구이다.

이런 자원을 바탕으로 진도군은 우수한 민속문화예술과 다도해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해 새로운 미래 문화예술산업을 개척한다는 전략으로 6개의 예비사업을 포함해 16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문화예술 거점시설과 자연 활동공간 등을 만들어 문화예술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자체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해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또 민속문화예술 전문기획자 등 문화예술인력을 양성하고 진도 민속문화예술 축제 등 문화예술 발전을 견인할 동력을 키울 예정이다.

체계적 추진을 위해 민간 분야와 적극 협치를 통해 문화도시사업 운영위원회(가칭)와 추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문화도시 지원 종료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하늘에서 본 천혜의 풍광...1004섬 드론 사진에 담는다

한상표 사진작가와 업무협약

4월 임자도 틀립축제서 전시

신안군이 1004섬의 아름다움을 드론 사진에 담는다.

신안군은 지난 31일 한상표 사진작가와 ‘1004섬 드론 사진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배우랑 신안군수와 한 작가, 김기만 신안군의회 운영위원장, 박수용 임자면장 등이 자리했다.

한 작가는 증도를 방문한 것을 인연으로 임자도의 풍광에 매료돼 30차례가 넘게 현장 출사를 통해 지난해 사진집 ‘임자도의 바람’을 출간했다.

그는 다수의 전시 경력과 대한민국 국제포토포스티벌 코리아 포토상 등의 수상 경력이 있다.

한 작가는 높아서 내려다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신안 섬의 천혜 자연경관을 사진에 담을 예정이다. 그의 작품은 오는 4월 임자도에서 열리는 틀립 축제에서 만날 수 있다. 앞으로 해마다 2-3개 섬을



신안군(군수 배우랑·왼쪽 다섯번째)이 한상표 사진작가와 1004섬 드론 사진 촬영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촬영해 작품집을 내고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배우랑 군수는 “작가의 시선으로 하늘에선 바라본 작품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을 선보일 뿐

아니라 앞으로 신안의 변화 과정을 볼 수 있는 자료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암군, 지난해 공공예금 이자수입 55억

전년 14억원 대비 392% 늘어

효율적 재정운용...세외수입 23%

영암군이 2023년 일반회계 공공자금 운용 결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5억원을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금액은 2022년 14억원 대비 392% 넘게 증가한 수치로, 영암군 역대 최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액에 해당한다.

또 2023년 영암군이 한 해 동안 징수한 지방세 외수입 237억 원의 23.2%에 달한다.

지난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자수입 증대

는 가뭄에 단비 같은 재원으로 쓰였고, 자주재원 확충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영암군의 분석이다.

이같은 성과는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효과도 일부 있지만, 군의 가장 큰 재원인 교부세가 감소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난관을 극복해낸 것이라고 군은 평가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올해도 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이자수입 30억 원을 확보했다”면서 “지난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발 빠른 대처로 목표액인 60억 원을 반드시 달성해 영암군민을 위한 일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천 기자 jbh@kwangju.co.kr

세얼굴

“해양생물 복원, 다양한 생태복지 제공 노력”

이전웅 다도해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

“아름다운 해양생태계 보전에 힘쓰겠습니다.” 1월1일자로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장으로 부임한 이전웅 소장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해양생물 증식과 복원을 통해 아름다운 해양생태계를 보전해 국민에게 다양한 생태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립공원을 만들도



산백암국립공원 소장 등을 역임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1995년에 국립공원공단에 입사한 이 소장은 북한산, 계룡산, 설악산국립공원을 거쳐 분사 홍보실장과 일터 안전실장, 비서실장, 내장

산백암국립공원 소장 등을 역임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